

“트럼프가 수사 막았다” 이 말 나올까

내일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
수사압력 받은 코미 FBI 전 국장
로즈스타인 부장관 공개 증언
트럼프 '사법 방해' 규명 관심

미국 정가를 강타한 '러시아 스캔들'이 이번 주에 중대한 국면을 맞는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의 내통 의혹을 수사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난달 9일 전격으로 해임된 제임스 코미(FBI) 전 국장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한 로드 로즈스타인 법무장관이 이번 주 상원 정보위에 출석해 공개증언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입이 열리는 순간 러시아 스캔들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코미 전 국장이 오는 8일 증언에서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 둘이 만났을 때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의



제임스 코미 FBI 전 국장



로드 로즈스타인 미국 법무 부장관

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다면 사태는 겁잡을 수 없이 흘러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언론은 코미 전 국장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으며, 면담 후 이러한 내용을 메모로 남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

사유인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에 하루 앞서 7일에는 같은 위원회에 로즈스타인 법무 부장관이 출석해 역시 공개증언을 한다.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메모를 근거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지만 '강감 검사' 출신인 로즈스타인 부장관은 트럼프 대

통령에게 맞서기라도 하듯 곧장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했다. 로즈스타인 부장관은 제프 세션스 법무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배제된 가운데 이 수사 전방을 통제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증언에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트럼프 1조 달러 투자
청문회 시선 분산용?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주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이행을 위한 닷을 들어올린다. 그러나 트럼프 측의 러시아 관련 의혹을 수사하다가 경질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오는 8일 의회 증언에서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에 쏠리는 초미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방항공국(FAA)에서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연설한다. 이어 7일에는 오하이오 주(州)를 방문해 농업 분야의 핵심인 맥과 제방, 저수지 등 내륙 수로의 효율성 개선에 대해 연설한다. 다음날인 8일 백악관에 미 전역의 주지사들과 시장을 초청한 가운데 인프라 투자 사업에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9일에는 교통부에서 도로와 철도 관련 규제 변경에 대해 논의할 계획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행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나 2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우대 혜택을 '미끼'로, 민간과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를 끌어낸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에 여야 모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맨체스터 자선 공연 5만명 모여

이날 공연장에는 5만 명이 넘는 팬들이 모였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맨체스터 공연 폭탄 테러로 22명이 희생된 것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그랜데가 주최한 자선공연이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 올드트라퍼드 크리켓경기장에서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원 러브 맨체스터' 공연이 열렸다. 전날 7명이 숨진 런던 테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공연은 폭탄 테러로 희생된 22명의 이름을 딴 공연이 열렸다. /연합뉴스

'텐안먼 사태' 탱크 맞선 청년 살아있다

중국의 6·4 텐안먼(天安門) 시위사태의 상징적 인물이 된 '탱크 맨'이 여전히 중국에서 이름을 숨기고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중앙통신은 당시 베이징(北京) 장안제(長安街)에서 시위진압을 위해 진입해오던 탱크 4대의 행렬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사진 속의 청년이 지금도 중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그간 왕웨이린(王維林)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청년의 행방은 알려진 바 없

었다. 당일 탱크에 깔려 숨졌다는 말도 있었고 당국에 체포돼 수감 중 사망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통신은 홍콩에 있는 중국 인권민주화운동정보센터가 인용해 이 청년이 중국을 떠나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채 여전히 안전하게 생존해 있으며 왕웨이린이 그의 본명도 아니라고 전했다. 정보센터 창설자인 프랭크 루(盧四瀟)는 왕웨이린이 탱크 행렬과 대치한 사진으로 자신이 해외에서 유명해진 것을 알고

있었으며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단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왕웨이린이 자신의 본명도 아니라면서 중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유명인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도 했다. 프랭크 루는 "그는 중국이 민주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단지 평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보센터가 지난 1999년 5월 텐안먼 시위진압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 뒤로 왕웨이린의 안전과 근황을 묻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5수나라 반군 지도자 이밀

이밀(李密, 582-618)은 요동성 조양 출신으로 자는 현수다. 서위 8주국의 일원인 이필의 증손으로 수양제 말기 반란집단의 지도자로 정권 타도에 앞장섰으나 후일 당나라에 귀순 후 살해되었다. 그는 부친 포산공의 직위를 계승해 양제 밑에서 무관으로 일했으나 관직을 떠나 독서에 전념했다. 권신 양소에게 인정을 받아 그의 아들 양현감의 참모로 발탁되었다. 양소는 그의 재능을 높이 사 아들에게 "너 같은 사람은 도저히 미치지 못할 인물이다"라고 평하였다고 한다. 예부상서 양현감이 고구려 정벌 중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양현감에게 세가지 계책을 건의했다. 첫째로 요동에 친정중인 양제의

북, 산둥, 강회 지방까지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그는 낙양을 포위했으나 오랫동안 함락시킬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 조정의 친서가 도착해 반란을 일으킨 우문화급을 치면 태위에 봉하고 문무대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군 서세적과 함께 우문화급을 공격했다. 추격전 중에 적군의 화살에 맞아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결국 우문화급 군을 격파하고 낙양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낙양은 이미 왕세충 군에게 함락되어 있었다. 618년 9월 왕세충은 낙양궁의 이밀을 공격했다. 부하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와중에 크게 패배했다. 부득이 수도 장안을 장악한 당의 이연에게 투항했다. 이연 휘하에 들어가 광록경에 임명되었다. 광록사의 장관으로 제사의 준

당나라 망명 뒤 모반 피하다 처형

배후를 공격할 것. 둘째 수도 장안을 비둘기 둥지라 하여 낙양을 점령할 것. 첫째는 상책, 둘째는 중책, 셋째는 하책이라고 설명했는데 양현감이 하책인 셋째 안을 선택함에 따라 반란은 실패했다. 양현감이 피살되고 그는 탈주해 망명길에 올랐다. 그는 망명 중에 농민봉기군의 세력을 얻어야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외강군이라 불리는 적양 세력에 귀순했다. 적양은 지방의 하급관리 출신으로 사건에 연루된 참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이밀을 구해내려 했다. 이밀은 이 기회를 틈타 반군을 이끌고 낙양을 공격해 재물을 약탈하는 도적 집단이었다. 그는 학식과 인품으로 세력을 키웠고 군사 가문의 신임도 얻었다. 어느날 주연을 베풀어 적양을 초청한 연후 살해해 버렸다. 이로써 적양 세력은 이밀의 휘하에 들어왔다. 적양의 휘하에 있던 위징과 서세적은 얻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이로써 이밀의 세력이 크게 성장되었다. 그는 낙양 근처의 식량 저장지인 낙양궁을 점령했다. "이밀은 백만 군중을 거느리고 있다"는 말처럼 낙양궁의 식량이 그의 최대 자산이 되었다. 위공에 오르고 서세적, 진숙보, 정지철 등 장수와 위징 같은 참모를 거느렸고 하

비 등을 담당하는 자리로 그에게는 커다란 굴욕이었다. 일찍이 이밀이 각지에 격문을 보냈을 때 이연은 그에 응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 내용중에 "당신을 가까이 받들어 용의 비늘을 끌어 잡고, 봉황의 날개를 붙잡겠다"는 표현이 있다. 이밀을 천하의 맹주로 받들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 이연의 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는 장안을 벗어나 다시 한번 뜻을 펴고 싶었다. 허남에 가있는 부장 서세적과 연계해 세력을 키우려는 복심이였다. 그는 몸소 산둥 평정에 나서고 싶다고 조정에 요청해 허가를 받았다. 당 조정은 이밀과 왕세충을 서로 싸우게 해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생각이 이를 허가했다. 당은 감시역으로 장보덕을 수행시켰는데 그는 "이밀은 반드시 모반한다"고 보고했다. 당은 그에게 단신으로 장안에 돌아와 새로운 명령을 받도록 명하였다. 장안에 소환되면 죽을 것으로 예상해 군량을 탈취해 강을 건너 용주로 도주했다. 당은 즉시 추격군을 보내 그를 처형했다. 당이 그의 배신을 예상하고 대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가 식량이 풍부한 낙양궁에 너무 안주한 것이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 그 와중에 장안에 이연이 들어와 판세가 바뀌었다. 위징, 서세적 같은 뛰어난 신하들이 당나라로 돌아선 것도 몰락을 재촉했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법원 경매/공매】

토지	공장
▶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토지 124평 감정가 348,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자연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665,000,000
▶ 남구 화장동 농막마을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04평 감정가 42,000,000	▶ 나주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업단지인근 계획관리 토지 1416평 건물484평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224,000,000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51평 감정가 320,000,000 최저가 211,000,000	
▶ 북구 매곡동 임야 토지 1717평 감정가 1,078,000,000 최저가 755,000,000	
▶ 나주 남평읍 교촌리 도시지역 생산농지 대로점 토지 1182평 감정가 715,000,000 최저가 501,000,000	
▶ 해남 문내면 학동리 학동저수지인근 대로점 토지 4151평 감정가 407,000,000 최저가 285,000,000	
▶ 해남 산이면 대진리 신농마을인근 대로점 토지 6042평 감정가 482,000,000 최저가 337,000,000	
▶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일 반 물 건

- ▶ 북구 운암동 운암동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9층
건물 29평 **매매가 63,000,000**
- ▶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성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 ▶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근 린 시 설

- ▶ 서구 쌍촌동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인근
토지 128평 건물 251평 **감정가 885,000,000** 최저가 619,000,000
- ▶ 동구 산수동 원룸 산수오거리인근
토지 83평 건물145평 **감정가 447,000,000** 최저가 358,000,000
- ▶ 동구 충장로5가
토지 65평 건물 **감정가 436,000,000** 최저가 218,000,000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